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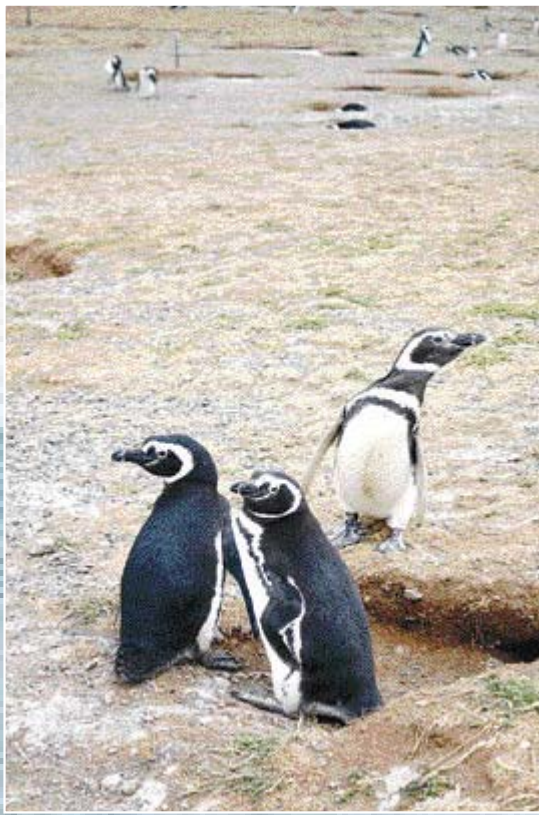
여기는 남극, 희망을 보았다

세계 최초 장애인 7대륙 최고봉 완등 동행 취재기



▲막달레나 섬 언덕 위의 노랑부리 갈매기들. 호시탐탐 펭귄의 알을 노려 펭귄과 갈매기 무리 사이에는 항상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마젤란 펭귄은 얼음 위에 사는 남극 펭귄들과 달리 초지의 경사면에 알을 땅굴을 파서 만든 동지에 알을 낳아 지극정성으로 보살핀다. 이들이 파놓은 땅굴 때문에 섬은 구멍투성이다.



5 '남극의 신사' 마젤란 펭귄

남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동물은? 연미복을 차려입은 듯 우아한 보호색 덕분에 '남극의 신사'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펭귄이다. 하지만 16~19종(種)에 달하는 펭귄을 꼭 고향인 남극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남미와 남아프리카 남단, 호주, 그리고 적도 부근의 갈라파고스 제도도 주요 서식지에 속한다.

지구 최남단의 도시 칠레 폰타 아레나스에서 배를 타고 마젤란 해협을 따라 북동쪽으로 2시간 가량(30km) 가면 막달레나 섬(Isla Magdalena)에 닿는다. 북쪽에 이웃한 마르타(Marta) 섬과 함께 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칠레 최대의 펭귄 서식지다. 동서 1.5km, 남북 500m, 넓이 85만㎡가량의 작은 섬을 펭귄과 가마우지, 노랑부리 갈매기가 가득 덮고 있다. 이 섬에 서식하는 펭귄은 모두 13만여마리. 16세기 초 마젤란 함대가 처음 발견했다 하여 '마젤란 펭귄(Magellanic penguin)'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얼어붙은 남극해를 떠나 한류를 타고 칠레 남부와 파타고니아 해안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마젤란 펭귄의 몸 길이는 60~70cm, 무게는 4~6kg. 머리 부위는 검고 눈 위에서 볼을 거쳐 목까지 흰 선이 있으며 눈 끝에 담홍색의 돌아난 부위가 있다. 가슴에서 겨드랑이를 지나 배 쪽으로 이어지는 검은 선이 있어 머리와 가슴 부위가 뚜렷하게 흑백의 대조를 이룬다. 마젤란 펭귄 부부는 철저하게 일부일처제를 유지하며 금슬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얼음 위에 사는 남극 펭귄들과 달리 초지의 경사면에 알을 땅굴을 파서 만든 동지에 알을 낳아 지극정성으로 보살핀다. 이들이 파놓은 땅굴 때문에 섬은 구멍투성이다. 식사때가 되면 땅굴에서 나와 줄지어 바다로 사냥을 나선다. 바닷가 모래톱과 자갈밭에는 수많은 펭귄 무리들이 웅기종기 모여있다. 파도속으로 자맥질을 하거나 바위 위에 서서 허영없이 먼 바다를 바라다보기도 한다. 뒤통거리며 해변을 걷거나 상대방의 털을 다듬어주는 무리도 있다. 사람구경을 많이 해선지 가까이 다가가도 그다지 개의치 않는다. 되레 뺨히 쳐다 보곤 한

다. 고개를 가우뚱거리는 펭귄의 행동은 상대를 위협하는 경고의 메시지로 한다. 귀엽다고 손으로 만지려 하면 공격당할 수도 있다.

언덕을 올라서자 노랑부리 갈매기들이 벌판 위에 하얗게 진을 치고 있다. 이들은 호시탐탐 펭귄의 알을 노리곤 한다. 이 때문에 펭귄과 갈매기 무리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펭귄을 위협하는 것은 갈매기들만이 아니다. 이들은 지구온난화와 해양 오염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파타고니아 주변의 펭귄 개체수는 40여년만에 절반으로 줄었다 한다. 전체 펭귄종 가운데 3종은 멸종위

기를 동원해 펭귄들을 고향인 남극으로 옮기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칠레 국립임업공사(CONAF) 직원 마르티네즈씨는 "기후변화 때문에 펭귄의 번식지가 점차 북상하고 기온이 상승하면서 조류 또한 빨라져 이에 휩쓸려 떠내려 가기도 한다"며 "특히 기름 유출 사고로 몸에 기름이 묻은 펭귄은 수영을 하지 못해 먹이를 구할 수 없게 된다"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적절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펭귄은 두 발로 뒤통거리며 걷는 모습 때문에 귀여움을 한 몸에 받는 새이지만 날지는 못한다. 물속 생활을 하면서 날개가 차츰 지느러미로 진화했고 이를 이용해 돌고래처럼 빠르게 헤엄치며 작은 물고기와 오징어를 잡아먹는다. 날지도 못하는 펭귄이 서식지에서 수천 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는 것 자체가 먹지 않아 인간에게 다가올 위험과 재앙을 예고하는 듯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우크라이나에서 열린 제3차 남극조약 당사국회의에서 세종기지 인근의 해안가 펭귄 서식지인 일명 '펭귄마을(Narebski Point)'에 대한 특별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오는 4월 미국 볼티모어에서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구역 지정이 결정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펭귄 특별보호구역'을 남극에 갖게 되는 것이다. 세종기지에서 남동쪽으로 2km 떨어진 면적 1km의 펭귄마을은 젠투펭귄을 비롯한 3종류의 펭귄과 남극 도둑갈매기, 현화식물, 선태식물, 지의류 등 각종 육상식물이 서식해 보호 가치가 높은 곳이다. <끝>

/글·사진=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40년 만에 절반으로 못볼 날 멀지 않았다

막달레나 섬 13만여마리 서식

온난화·오염으로 개체수 급감

3종 멸종위기 7종은 멸종 등급

기 등급, 7종은 '자연 상태에서 멸종할 가능성이 높음' 고위험 등급, 2종은 '곧 멸종 위협을 받게 될'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남극의 얼음 위에 사는 아델리 펭귄은 대륙 서부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온난화로 먹이를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학자들은 대규모 기름유출과 엘니뇨, 어로 등 때문에 갈라파고스나 페루 등지에 사는 온대 펭귄 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마젤란 해협 주변 펭귄들도 10년 전에 비해 60km나 먼 거리를 헤엄쳐야 먹이를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온난화와 상업 어로 때문에 먹잇감 물고기들의 규모가 줄어들어 탓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4일에도 승객 122명을 태운 아르헨티나의 유람선 '우슈아이아'호가 남극 해역에서 좌초돼 연료 유출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1천여마리의 펭귄 떼가 3천200km나 떨어진 브라질 북동쪽 한 해변에 갑작 등장해 브라질 당국이 공군 비행기 수십 대

지구 최남단의 도시 칠레 폰타 아레나스에서 30km가량 떨어진 마젤란 해협의 막달레나 섬의 마젤란 펭귄 무리. 이 곳에는 모두 13만여마리의 펭귄이 서식하고 있다.

이태리 가구 & 장식품

광주 롯데백화점 8층
입점 행사 **50%**

홍 스페이스
TEL. 226-7557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100% 합격 보장!

국비

계좌제/간호조무사 **교육생 모집**

가족사랑 간호전문학원

945-7125~7